

Wild Heart VI

마지막 때 숨겨진 모세의 리더십의 비밀 (민12:3)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1. 출애굽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1) 출애굽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리더십' 이다. 특별히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 이다. 그 분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 어떤 때 보다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

- ㄱ. 시간 -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 ㄴ. 사람 -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 하나님의 권위가 임함.
- ㄷ. 사건 -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출애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예이다.

- ㄱ. 시간 -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시간. - 출애굽.
하나님의 시간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임한다.
- ㄴ. 사람 - 모세를 세우셨다.
- ㄷ. 사건 -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과 사건이 일어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2) 출애굽의 의미

마찬 가지이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작게 또는 크게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다.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인가?

- ㄱ. 약속된 언약, 땅 -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
- ㄴ. 새로운 삶 - 애굽의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 백성의 새 삶이 시작 되는 것.
정체성의 강력한 변화
- ㄷ. 언약의 삶을 위한 훈련. -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스타일'을 습득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언약의 삶을 의미한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다.
- ㄹ. 전환 (Transition)을 통한 '재배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와 권위)'
- 다시 말해 찾아오는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재배치됨을
따라 찾아오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삶을 의미한다.

(3) 출애굽의 중요성

구약 - 출애굽 / 신약 - 사도행전.

=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시는가? 새로운 시즌을 여셨다. 새로운 것을 보이셨다.

많은 백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찾아오는 삶,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끈 모세를 집중해야 한다.

2.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라. - 마지막 때의 리더십

출애굽의 이 엄청난 사건을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처음과 끝을 완성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기능' 이 아니다.

- 진정한 담대한 마음의 출처가 어디로 부터 오는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

(1)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 능력과 권능 보다 중요한 것이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이다. 이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다. 그 분의 열정, 사랑, 자비, 긍휼 등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예) 세상의 사랑 - 겉모양을 추구 (모든 것이 쇠한다) - 진정한 사랑 (성품을 추구 하는 것) 이다.

(2) 성품은 능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능력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다.

성품은 능력으로 인해 지배당하지 않고 능력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예) 예수님 -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갔지만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이 떨어질 때 예수님을 떠났다.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하게 된 것이다.

예) 바로의 술객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사울 -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사울이 택한 것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 가는 일이었다.

- 기능적 삶.

(3) 성품과 능력의 딜레마

- ㄱ. 성품 (영성)은 좋은데 능력 (실재)가 약한 경우
- ㄴ. 능력 (실재)은 좋은데 성품 (영성)이 약한 경우.

시소와 같이 우리의 삶에 두 영역이 공존한다. 현실과 영성의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갈등한다. 그러나 평등한 시소와 같이 마지막 때는 두 영역이 동일하게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늘과 땅을 통합 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능력을 먼저 준비 시키는 사람도 있고, 성품을 먼저 시키는 사람도 있다. 순서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된 온전한 존재'로 마지막에 귀결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된 온전한 존재' 즉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통합 시키는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삶을 의미한다.

'내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 =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 완성된 모습.

10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 엡 1:10

(4) 모세

(1) 능력이 준비 된 사람 (실재)

-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능력을 배우며 자란 사람이었다. 갖추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성품이 준비 되지 않았다.

성품은 '능력'을 제어 시킬 수 있는 '제어기'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않된다.
리더가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지 못할 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도자와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11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 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12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 출 2:11~12

모세의 행동에 무엇이 문제인가? '동기'는 선하다. '정의'가 발동 된 것이다. '리더의 자질' 이 나온 것이다. 자신의 동족이 맞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잠재된 강력한 리더십이 건드려진 것이다.

리더는 '공동체' 통해 '동기부여'를 받는다. -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동족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정의감이 발동된 것은 좋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의 '정의'감이 밖으로 표출 될 때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 '제어' 가 되지 않았다. : 동기부여 (정당성) - 능력 (제어가 되지 않음)
- 그릇된 결과.

결국,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그는 동족으로 부터 리더십을 사지 못했다. 동족을 위한 정당한 행위 였지만 중요한 결과는 동족으로 부터 외면당했다는 것이다.

13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14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यो?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 출 2:13~14

제어되지 않는 능력으로 부터 나타나는 리더십은 결국은 그릇된 결과를 가져왔다.

(2) 광야의 삶 - 리더로서의 그릇(성품)이 준비됨. - 광야의 해석

15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 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 출2:15

- ㄱ. 미디안 광야 - 외로운 곳, 두려운 곳. 낯선 곳.
- ㄴ. 광야에서의 준비. - 리더십을 전혀 발휘 하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다. 그 곳에서는 궁전에서 리더십을 전혀 발휘 할 수 없게 하셨다.

예) 부교역자 생활 - 하나님의 새 일이 준비 되어 질 때: 가장 힘들었다. 준비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셨다. 결단하게 하셨다. 그리고 낯선 광야로 보내셨다.

광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광야는 '심플한 삶'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모든 것이 정돈 되어 진다.

단순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을 준비 시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부여 주신다. 그 때 나타나는 모세의 리더십은 결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이끌었다.

(3) 모세의 리더십 - 진정한 와일드 하트 (성품의 변화)

- ㄱ. 신본주의 리더십- 첫 째 계명이 강화됨 -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삶.
- ㄴ. 희생의 리더십- 두 번째 계명을 강화함 - 내가 죽고 백성이 사는 것.
- 예)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 ㄷ.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성취시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냄.

3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 민 12:3

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역개정)

겸손이 보여 주는 최고의 성품 '온유함' =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삶.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결국 모세의 성품 변화는 어떤 일을 가져 왔는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표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였다. 그 성취는 모세의 성품의 변화와 그가 지니고 있던 능력의 리더십이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기억하라. 나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내가 변해야 한다. 모든 주권과 권세가 나로 부터 출발됨을 확신하라. 사탄은 이 일을 싫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담대해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한다. 변화는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 이다. 흠도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 온전함이 가득 찰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팔복의 깊은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성품의 변화는 능력을 배로 증가 시킬 수 있다. 무한한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5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 마 5:5

(4) 십자가의 삶. 어린양의 삶. 광야의 삶 = 예수님과 모세의 리더십.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었다.

자신은 없고 모든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풀어 준 사람. 십자가의 삶. 어린양의 삶.

1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 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 주셨다.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3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 주셨다.

4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5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6 모압 땅 벳브올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7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백스무 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8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다. - 신 34:1~8

10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11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12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 신34:10~12

하나님과 모세와의 사랑, 그 둘의 친밀감.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지를 볼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다.

예)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 우상이 되었을 것이다. =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무덤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백성은 모세의 성품을 기억했다.

-그의 리더십을 기억했다.

-그의 능력을 기억했다.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의 삶을 기억했다.